



Original Article

## Health Behaviors, Reproductive Health History, and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Ahn, Sukhee<sup>1)</sup> · Park, Insook<sup>1)</sup> · Han, Jin Sook<sup>2)</sup>  
Kim, Tae Im<sup>3)</sup> · Kwak, Myung Soon<sup>4)</sup> · Chung, Hi Sook<sup>5)</sup>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3)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4) Division of Health, College of Visual Image & Health, Kongju University

5) Major of Nursing, Shinsung College

## 대학생의 생식건강 관련 건강행위, 생식건강력 및 성행위 실태

안숙희<sup>1)</sup> · 박인숙<sup>1)</sup> · 한진숙<sup>2)</sup> · 김태임<sup>3)</sup> · 광명순<sup>4)</sup> · 정희숙<sup>5)</sup>

1) 1)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2)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4) 공주대학교 영상보건대학 보건학부, 5) 신성대학 간호과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health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reproductive health history, and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local areas. **Method:** With a survey design, 792 college students from C and D areas were recruited to assess health behaviors such as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as well as history of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behaviors. The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November to December, 2007. **Result:** Mean age of the students was 20.8(SD=1.96) and gender distribution was 29.2% for male and 70.8% for female. Unhealthy behaviors were alcohol drinking, smoking, excessive weight loss, and irregular exercise; unsafe sex practices were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with multiple sex partners and history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STD). Male students had more alcohol drinking ( $p=.04$ ), smoking( $p<.001$ ), excessive weight loss( $p=.01$ ),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with multiple sex partners( $p<.001$ ), history of STD( $p=.025$ ) compared to females. On the other hands, female students participated in regular exercise less than males( $p<.001$ ). **Conclusion:** College students seem to perform unhealthy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less effective way of safe sex practices. Therefore, a planned education program for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operated by college level is needed to assess and improve the level of reproductive health in college students.

**Key words :** Reproductive health, Health behavior,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Sexual behavior

투고일: 2008. 6. 19 1차심사완료일: 2008. 7. 30 2차심사완료일: 2008. 8. 28 3차심사완료일: 2008. 9. 11 최종심사완료일: 2008. 9. 12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Ahn, Sukhee(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6 Munhwa-1 dong, Jung-gu, Daejeon 301-747, Korea

Tel: 82-42-580-8324 C.P.: 82-16-9877-7755 Fax: 82-42-584-8915 E-mail: sukheeahn@cnu.ac.kr

## 서론

평생 건강의 기틀이 되는 태아기 및 영유아기의 ‘건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모자보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모성의 건강증진은 생식건강 증진이 핵심이기 때문에 관련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실천행위를 가임기에서부터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Hwang, 2008). 생식건강이라 함은 남성이나 여성에서 생식을 위해 필요한 구조나 기능에 초점을 두어 생식기 호르몬 분비와 월경주기, 임신, 분만, 산욕 뿐만 아니라 생식건강과 관련되는 사회심리 행동적 문제, 성적 기능, 폐경과 호르몬 사용의 문제, 불임 및 생식능력을 증가시키는 기계기술의 윤리적 문제,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을 말한다(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2007). 세계보건기구(1997)가 제시한 생식건강 지표에는 모성의 경우, 안전한 피임 실천율, 매독혈청검사 양성률, 가임여성 빈혈 유병률이 있고, 가임기 남녀 모두에서는 성관련 질환 예방을 위한 실천지식 습득 비율이 있다(as cited in Hwang, 2008). 따라서 생식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는 모성 즉 임신과 출산기 이전의 가임기에서부터 남녀 모두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실천 행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수행이 요구된다.

생식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유용한 건강관리 행위에는 금연, 절주, 운동, 영양과 같은 건강생활 실천과 성 전파성 질병(이하 성병으로 명함) 예방을 위한 안전한 성행위 준수, 그리고 생식기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규칙적인 유방검진과 생식기 검진 등을 들 수 있다(Hwang, 2008; Yoo et al., 2005).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은 대학 입학 후 대체로 음주와 흡연을 시작할 뿐 아니라 그 양이 증가하고 있고,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등 잘못된 건강행위를 갖고 있어(Ock, Moon, & Kim, 2001) 자신의 건강상태뿐 아니라 생식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잘못된 건강행위가 지속될 경우 비만, 당뇨병, 폐질환 및 간질환 등의 다양한 만성질환을 유도할 수 있고, 생식건강 차원에서 볼 때 음주, 흡연과 물질 남용은 성욕 감소, 정자 기형, 정자 수 감소로 인한 불임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태아 염색체의 이상과도 관련이 있다(Kennedy, Griffin, & Frishman, 1999). 무리한 체중 감소와 영양장애는 성 호르몬계의 균형을 파괴하여 월경장애와 불임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었다(Parent-Stevens & Burns, 2000). 대학생의 건강습관과 건강행위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한 결과, Im 등(2004)과 Hwang 등(2007)이 수행한 음주와 흡연행위, Kim 등(2007)이 수행한 음주 행위 연구, 그 외 전반적인 건강습관과 건강상태 연구(Ock, Moon, & Kim, 2001), 건강위험행동조사 연구(Lee, Lee, & Woo, 2003)가 보고되었으나, 생식건강과 관련지어 바람직한 건강행위의 실천

실태를 파악하고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생식건강 문제와 안전한 성행위 실천은 상호 연관되어진다. 남녀 대학생 모두 성 개방 문화와 군대 문화에 노출되면서 성 경험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성병에 감염되거나 혼전 임신으로 인한 유산을 경험하기도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에서 성경험률은 남학생의 55~77%, 여학생의 22~35%로 나타났다(Choi & Ha, 2004; Hur et al., 2007; Jeon, Lee, & Rhee, 2004; Oh et al., 2005). 또한 여학생에서 혼전 임신 경험률은 1.3%였고, 성경험이 있는 여성 중의 33%가 임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Seo & Lee, 1999).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2004년 1월부터 6월 중 성병 통계에 따르면 비임균성 요도염을 제외한 나머지 성병에서 여성 감염자수가 남성보다 오히려 많았고, 20대 여성이 전체 성병감염 여성의 70%를 넘었다고 한다. 또한 1985-2007년까지 에이즈 발견 당시 연령 현황을 보면 20대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Korean Alliance to Defeat AIDS, 2008) 성적으로 활발한 20대가 생식건강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집단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성 행위 조사연구는 피임방법을 주고 보고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피임지식 수준은 콘돔 이외 피임 방법에 대해 매우 낮았고(Lee, 1999). 피임 실천율은 20-89%로 다양하였다(Choi & Ha, 2004; Hur et al., 2007). 이들이 사용하는 피임종류에는 체외사정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콘돔이 그 다음이었고(Lee, Lee, & Woo, 2003), Choi 등(2004)의 연구에서는 콘돔, 월경주기법, 피임약을 사용하고 있어 콘돔 이외에는 비효과적인 성병예방 및 피임방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후반 여학생이 콘돔사용, 금욕, HIV와 성병검사, 안전한 파트너 선택, 콘돔사용에 대한 협상, 위험요인 토론하기, 성 파트너 수 제한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성병 예방 전략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Hutchinson, Sosa, & Thompson, 2001). 따라서 성 행위 조사에 피임방법과 더불어 다양한 측면의 성행위 실태를 조사하여,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한 성행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성 건강과 관련해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경험률과 함께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성역할, 성 이미지 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상당량 발표되었다(Han & Ham, 2000; Lee & Kim, 2003; Woo & Ka, 2005; Yang & Jung, 2002). 반면 생식건강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수행된 조사 연구는 고등학생 대상 1편(Cho & Kim, 2004)과 기혼 취업여성 대상 1편(Kim & Han, 2004)이 보고되었을 뿐 구체적인 생식건강력과 안전한 성행위 실천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수행하는 건강행위

와 생식건강력 및 안전한 성행위 실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건강행위와 생식건강 문제 및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개인 및 대학교 차원에서 대학생의 생식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행위, 생식건강력, 및 성행위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 설계를 이용하였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여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대전과 인근 충남지역에 있는 학생을 표적모집단으로 접근하였다. 대전지역과 충남지역에 설립된 대학 수에 비례하여 대전 소재 4개교와 충남 소재 2개교를 접근 가능한 대학으로 선정하고, 해당 대학에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편의 모집한 총 1,022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중 배포한 설문지에 부적절한 표기를 한 경우를 제외한 792명이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이다.

### 3. 연구 도구

#### 1) 생식건강과 관련된 건강행위, 생식건강력 및 성행위

본 연구에서는 여성건강간호학 교과서(Yoo et al., 2005)에 제시된 생식건강을 위한 지침에 근거하여 연구팀이 생식건강과 관련된 건강행위 6문항, 생식건강력 4문항을 선정하였고, 그리고 CDC(2002)가 권고하는 안전한 성행위 지침 6문항을 추출하여 측정하였다. 생식건강과 관련된 건강행위에는 흡연, 음주, 불결남용,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식사, 최근 3개월간 10Kg 이상의 체중감소로 구성하여 예, 아니오로 측정하였다. 생식건강력에는 성경험 여부, 생식기 주위 병변, 방광염과 성병 감염력으로 구성하여 예, 아니오로 측정하였다. 추가로 여학생에게는 질염 여부, 산부인과 검진 여부와 검진을 받게 된 이유를 질문하였다. 또한 현재 성적으로 활발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안전한 성행위에 대한 추가문항

을 제시하여 응답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성행위 조사 내용은 첫 성교나이, 지금까지의 성파트너 수, 성파트너와의 관계, 피임실천 정도, 피임방법과 성병 감염력이었다.

#### 2)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 성별, 군필 여부, 학년, 계열, 종교, 거주 형태, 가정의 경제수준을 조사하였다.

## 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주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07년 1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대전과 인근 충남지역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 중 5개 대학에 속한 연구원들과 1개 전문대학에 속한 연구원이 모집인원을 분담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모집된 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면서 연구참여의 자율성, 비밀보장의 원칙 준수, 연구참여를 통한 이점과 위험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조사지를 배포할 때,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표시로 서명을 요청하였고 서명 후 조사지를 스스로 작성하게 하였다. 작성에는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작성을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제공되었다. 배포된 질문지 1,022 부 중 1,011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기혼자, 연구변수에 대한 무응답,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보인 질문지 등 219부를 제외하고 총 79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인구학적 특성, 생식건강 관련 건강행위, 생식건강력, 안전한 성행위 등은 빈도분석을, 성별에 따른 결과변수의 비교는  $\chi^2$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 5. 연구의 제한점

대상자가 성관련 특성을 응답할 때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또는 과다 응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전국 규모가 아닌 일 지역의 조사이기에 그 결과를 확대해석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78세(SD=1.96)로 최소 17세에서 29세까지 범위를 나타냈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은 231명(29.2%), 여학생은 561명(70.8%)이었고, 남학생 중 군필자는 159명으로 남학생의 68.8%를 차지하였다. 과반수 이상이

(51.0%)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1학년이 280명(35.4%), 2학년이 235명(29.7%), 3학년이 194명(24.5%), 4학년이 83명(10.5%)이었다. 전공분야는 인문사회/예체능계열(인문학, 법학, 무역학, 예체능계)이 275명(34.7%), 자연공학계열(공학, 생활과학, 보건학, 간호학)이 517명(65.3%)이었다. 거주형태에서는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가 331명(41.8%), 그 외 기숙사, 자취, 하숙, 고시원 등 혼자 사는 경우가 461명(58.2%)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인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상'이 363명(45.8%), '중하'가 343명(43.8%)이었다(Table 1).

<Table 1> Subjects' characteristics (N=792)

Variable	Category	n	%
Age*	17-20	319	52.9
	21-24	453	44.6
	25-29	20	2.5
Gender	Male	231	29.2
	Female	562	70.8
Religion	Yes	388	49.0
	No	404	51.0
School year	Freshmen	280	35.4
	Sophomore	235	29.6
	Junior	194	24.5
	Senior	83	10.5
Study major area	Liberal art	275	34.7
	Science	517	65.3
Living with family /relatives	Yes	331	41.8
	No	461	58.2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y	Upper high	20	2.5
	Middle high	363	45.9
	Middle low	343	43.3
	Low high	43	5.4
	Low low	15	1.9
	missing	8	1.0

\* Mean=20.78(SD=1.96)

## 2. 생식건강 관련 건강행위 실태와 성별 차이

생식건강과 관련된 건강행위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14.5%가 담배를 피고 있었고, 남학생의 흡연율은 42.4%에 비해 여학생은 3.2%로 나타나 남학생의 흡연율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chi^2=199.3, p<.001$ ). 음주율은 76.8%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82.1%가, 여학생은 75.3%가 음주를 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음주율 역시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4.31, p=.04$ ). 약물남용은 남학생 1명(0.1%)에서만 보고되었다. 최근 3개월동안 10Kg 이상의 체중감소 경험률은 4.9%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8.3%가 경험한 반면 여학생은 3.6%에서 발생하여, 남학생의 과다 체중감소 경험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7.69, p=.01$ ).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수행률은 16.2%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32.3%가, 여학생은 9.7%가 수행하고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규칙적인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chi^2=61.1, p<.001$ ). 규칙적인 식사 실천율은 42.9%로 나타났고, 남학생 40.2%, 여학생 44.4%로 유사하였다(Tabel 2).

## 3. 생식건강력 실태와 성별 차이

대학생의 성경험률은 19.8%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 49.8%에 달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 7.5%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성경험을 갖고 있었다( $\chi^2=183.8, p<.001$ ). 성전파성질환(이하 성병이라 칭함) 감염률은 0.9%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2.2%인 것에 비해 여학생은 0.4%를 보고하여, 남학생이 성병 감염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chi^2=6.15, p=.025$ ). 생식기주위 병변 경험률은 5.7%였고, 남학생은 5.4%, 여학생은 5.7%로 집단 간에 유사하였다. 방광염 경험률은 7.7%였고, 남학생은 2.4%, 여학생은 4.7%로 집단 간에 유사하였다. 여학생에서는 질염 경험률이 7.3%였고, 산부인과 방문경험률은 29.8%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에 방문하게 된 주요

<Table 2> Comparison of health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by gender (N=792)

Variable <sup>a</sup>		Total	Male (n=231)	Female (n=561)	$\chi^2$ (p)
Smoking	Yes	115(14.5)	97(42.4)	18( 3.2)	199.3 (<.001)
	No	672(84.8)	132(57.6)	540(96.8)	
Alcohol drinking	Yes	608(76.8)	188(82.1)	420(75.3)	4.31 ( .04 )
	No	179(22.6)	41(17.9)	138(24.7)	
Substance use	Yes	1( .1)	-	-	-
	No	787(99.4)			
Weight loss>10 Kg during 3 months	Yes	39( 4.9)	19( 8.3)	20( 3.6)	7.69 ( .010)
	No	749(94.6)	210(91.7)	539(96.4)	
Regular exercise > 3 times per week	Yes	128(16.2)	74(32.3)	54( 9.7)	61.1 (<.001)
	No	659(83.2)	155(67.7)	504(90.3)	
Regular meal	Yes	340(42.9)	92(40.2)	248(44.4)	1.20 ( .30 )
	No	447(56.4)	137(59.8)	310(55.6)	

<sup>a</sup> missing cases were excluded

<Table 3> Comparison of reproductive health history by gender (N=792)

Health history	Total	Male (n=231)	Female (n=561)	$\chi^2$ (p)	
Had sexual intercourse	Yes	157 (19.8)	115 (49.8)	42 ( 7.5)	183.8 (<.001)
	No	635 (80.2)	116 (50.2)	519 (92.5)	
STD history <sup>a</sup>	Yes	7 ( 0.9)	5 ( 2.2)	2 ( 0.4)	6.15 (.025)
	No	781 (98.6)	224 (97.8)	557 (99.6)	
Genitalia lesion <sup>a</sup>	Yes	43 ( 5.6)	11 ( 5.4)	32 ( 5.7)	.04 (1.0 )
	No	719 (94.4)	194 (94.6)	525 (94.3)	
Cystitis <sup>a</sup>	Yes	31 ( 7.7)	5 ( 2.4)	26 ( 4.7)	1.91 ( .21)
	No	731 (92.3)	200 (97.6)	531 (95.3)	
Vaginitis	Yes	-	-	41 ( 7.3)	-
	No	-	-	520 (92.7)	
Had a visit to OBGY clinic	Yes	-	-	167 (29.8)	-
	No	-	-	394 (70.2)	
Reason to visit OBGY clinic (n=167)	Menstrual symptoms	-	-	112 (67.1)	-
	Vaginitis	-	-	25 (15.0)	
	Pap smear	-	-	22 (13.2)	
	Contraception	-	-	4 ( 2.4)	
	Pregnancy	-	-	2 ( 1.2)	
	Other	-	-	2 ( 1.2)	

<sup>a</sup> missing cases were excluded

사유에는 월경통과 월경증상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주로 월경 불순이 대부분이었고(67.1%) 그 외 질염(15.0%), 자궁경부세 포진검사(13.2%), 피임관련(2.4%), 임신(1.2%), 기타 난소 종양 (1.2%)이 있었다(Table 3).

#### 4. 성행위 실태와 성별 차이

현재 성적으로 활발하다고 응답한 대상자(n=157)의 성행위

실태를 보면, 대상자의 첫 성교나이는 평균 19.2세(SD=1.89) 였지만, 범위는 14-24세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첫 성교나이는 차이가 없었다. 첫 성교 이후 현재까지 성파트너 수는 1명에서 10명 이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성파트너 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chi^2=18.61$ ,  $p<.001$ ). 현재 성파트너와의 관계는 애인관계가 대부분(71.3%)을 차지 하였고, 기타 관계(15.4%), 대학 내 동료(7.0%), 새로 사귄 사람(5.6%), 매춘부(0.7%)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Table 4> Comparison of sexual behaviors by gender among sexually active students (N=157)

	Total	Male (n=115)	Female (n=42)	$\chi^2$	
Age at the first sex	19.2 (1.89)	19.0 (1.99)	19.5 (1.79)	t=1.28 (.20 )	
Range	14-24	14-24	15-23		
Number of sexual partner since	1	57 (36.3)	34 (29.6)	23 (54.8)	18.61 (.001)
	2	32 (20.4)	21 (18.2)	11 (26.2)	
	3	23 (14.6)	17 (14.8)	6 (14.3)	
	4~9	29 (18.5)	27 (23.5)	2 ( 4.8)	
	More than 10	16 (10.2)	16 (13.9)	0 ( 0.0)	
Relationship with current sexual partner <sup>a</sup>	Lover	102 (71.3)	68 (66.7)	34 (82.9)	6.43 (1.69)
	Colleague	10 ( 7.0)	9 ( 8.8)	1 ( 2.4)	
	New partner	8 ( 5.6)	8 ( 7.8)	0 ( 0.0)	
	Prostitute	1 ( 0.7)	1 ( 1.0)	0 ( 0.0)	
	Others	22 (15.4)	16 (15.7)	6 (14.6)	
Contraception practice <sup>a</sup>	Do always	76 (52.1)	50 (47.6)	26 (63.4)	3.93 (.14 )
	Do sometimes	59 (40.4)	45 (42.9)	14 (34.1)	
	Never do	11 ( 7.5)	10 ( 9.5)	1 ( 2.4)	
Method of contraception <sup>a</sup>	Condom	128 (88.9)	94 (90.4)	34 (85.0)	1.62 (.66 )
	Oral contraceptives	6 ( 4.2)	3 ( 2.9)	3 ( 7.5)	
	Vaginal withdrawal	7 ( 4.9)	5 ( 4.8)	2 ( 5.0)	
	Rhythm method	3 ( 2.1)	2 ( 1.9)	1 ( 2.5)	
STD history	Yes	6 ( 3.9)	5 ( 4.5)	1 ( 2.4)	35 (1.00)
	No	151 (96.1)	110 (95.5)	41 (97.6)	

<sup>a</sup> missing cases were excluded

다양한 관계의 파트너를 갖고 있었으나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피임실천 행위는 과반수이상(52.1%) 항상 실천한다고 응답하였고, 40% 가량은 가끔 한다, 7.5%는 전혀 안한다고 응답하였다. 피임을 항상 한다는 남학생은 47.6%, 여학생은 63.4%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사하였다. 피임방법에는 대부분(88.9%) 콘돔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외 질외사정(4.9%), 경구 피임제(4.2%), 주기법(2.1%)을 사용하고 있었다.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는 남학생은 90.4%, 여학생은 85.0%로 나타나 집단 간에 유사하였다. 현재 성적으로 활발한 대상자에서 성병 감염률은 3.9%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4.5%, 여학생은 2.4%의 감염률을 보고하였으나 집단 간에 차이는 없었다(Table 4).

## 논 의

본 연구는 대전, 충남지역의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792명을 대상으로 생식건강을 위한 건강행위와 생식건강력, 성적으로 활발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성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생식건강 관련 건강행위 중 가장 위험한 항목은 음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술을 마시는 주된 이유는 음주가 보편화된 사회분위기, 대학생활의 일부로서 음주를 수용하고 친구 및 선배간의 사교목적과 집단 결속력 강화를 위해,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순으로 나타났다(Yoon, 1999). 음주율은 남학생의 음주율(82.1%)이 여학생(75.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보고한 음주율 77~99% (Lee, Lee, & Woo, 2003; Ock, Moon, & Kim, 2001)와 비교 시 본 연구의 음주율은 낮았지만, 대학생의 음주가 얼마나 보편화된 생활습관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음주는 영양결핍과 함께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월경 불순과 무월경을 초래하고 유방암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등 생식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끼칠 수 있어(Parent-Stevens & Burns, 2000), 생식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단주 또는 절주 실천을 강조해야 하겠다.

연구대상자의 흡연율은 14.5%였고, 남학생의 흡연율(42.4%)은 여학생(3.2%)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53~57%의 남학생 흡연율과 13~17%의 여학생 흡연율을 보고한 연구(Ock, Moon, & Kim, 2001; Oh et al., 2005)와 비교할 때 본 연구대상자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학생의 흡연율이 높은 이유는 남학생 동료와 함께하는 집단 역동과 군대생활과 관련된 흡연 증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학생에서는 스트레스 완화, 정서적 안정, 체중감소를 목적으로 흡연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흡연은 수정능력을 감소시키고, 자연유산이나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폐경을 촉진하고,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생식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Kennedy, Griffin, & Frishman,

1999). 따라서 대학생 집단에게도 건강증진 차원의 절주/금연 사업을 시행하여 그 심각성을 알리고 음주 및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사업 중 보건소 중심의 절주/금연사업을 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생을 찾아가 음주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교육하고 증재하는 방문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비율은 남학생이 32.3%에 반해 여학생은 9.7%로 나타나, 여자의 운동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규칙적인 운동 수행률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Lee, Lee, & Woo, 2003; Ock, Moon, & Kim, 2001). 최근 10kg 이상의 체중감소 비율은 남학생이 8.3%로 여학생의 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근 사회에서 요구하는 소위 '몸짱', '얼짱' 등으로 남성에서도 운동과 다이어트를 통한 체중관리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체중감소와 영양장애는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 간 호르몬 방출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생식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Parent-Stevens & Burns, 2000), 이들을 위해 체중관리 원칙과 운동과 함께하는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건강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생식건강력에서는 성경험률이 19.8%, 남학생에서 49.8%, 여학생에서 7.5%가 성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경기, 부산 등의 대도시 소재 대학생의 성경험률에 비교하면(Choi & Ha, 2004; Jeon, Lee, & Rhee, 2004; Oh et al., 2005)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체로 여학생의 성경험률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편이나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성병예방과 조기발견을 목표로 하는 대학교 차원의 생식건강 교육 및 상담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병 감염률은 전체 대상자를 기준으로 할 때 남학생의 2.2%, 여학생의 0.4%로 나타났지만, 성적으로 활발한 학생군에서는 남학생의 4.5%, 여학생의 2.4%가 감염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성적으로 활발한 경우 성병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생식기 주위의 병변 발생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방광염 감염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뇨생식기계의 해부학적 구조상 여자의 요도 길이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염 감염률도 7.3%로 나타났다. 의사의 진단결과인지는 불분명하나 대학생 층에서도 다양한 생식기 감염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학생 중 산부인과 방문을 하게 된 주요 사유가 월경관련 불편감이었다. 이러한 월경통, 무월경, 월경불순에 대해 대상자들이 단순한 진통제나 피임약의 복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정을 통해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한 건강행위로 생각된다. 제한점으로는 남학생 대상의 요도염 감염력 여부와 비뇨기과 검진 사유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학생의 생식건강력 실태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현재 성적으로 활발한 대학생에서 조사된 성행위 실태는 안전한 성행위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한 성행위 준수를 통한 피임과 성병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 개별적/소집단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첫 성교 연령은 평균 19세로, 남학생의 경우 최초의 성경험이 14세, 여학생의 경우 15세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Kim, 2008)결과 청소년의 4.8%가 성경험을 갖고 있고, 성관계 시작연령이 13.5세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지금까지의 성 파트너 수는 남학생의 경우 최소 1명에서 최대 40명으로, 여학생은 최소 1명에서 최대 6명으로 보고되어, 새로운 성 파트너를 많이 사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성병의 전파 및 자궁경부암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의 위험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성교시 피임을 항상 실천한다는 비율은 남학생의 47.6%, 여학생의 63.4%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경우 피임실천자가 25.2%(Korea CDC, 2006)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45%가 임신예방 조치를 매번 한다는 보고(Choi & Ha, 2004)와는 유사하나, 89%가 피임을 한다고 연구(Hur et al., 2007)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학생의 피임 미실천과 더불어 비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피임방법에서는 콘돔이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가장 많이(88.9%) 사용되고 있었지만, 일부 대상자에서는 피임실패율이 높은 질외사정이나 주기법을 실천하고 있어, 대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피임방법이 콘돔(58%)이고 그 외 질외사정, 피임약, 자연주기법 등의 순서로 나타난 결과(Choi & Ha., 2004; Hur et al., 2007)와 유사하다. 이는 비효과적인 피임방법이기 때문에 성병 감염, 임신 또는 유산과 같은 생식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성병예방과 피임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시범 및 실습과정이 필요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생식건강 관련 건강행위, 생식건강력 및 성행위 관련 조사는 익명성이 보장된 설문지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흡연 등의 건강행위 비율이 다른 연구결과 수치에 비해 낮게 나타난 점과, 생식건강력과 성행위 질문은 성적으로 민감한 문제여서 실태를 밝히기보다는 숨기는 경우가 많았을 것임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생식건강수준의 사정을 통해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갖춘 대상자 중심

의 서비스가 계획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생식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식건강 관련 건강행위와 생식건강력을 조사하고 성행위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과 이를 성별 비교분석할 수 있어 대학생을 위한 생식건강 교육 내용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생식건강 위험요인에는 남학생에서는 음주와 흡연, 과도한 체중감소, 성병 감염률, 다수의 성파트너이고, 여학생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참여를 저조, 남녀 모두에서는 불규칙한 식사, 피임실천율 저조 및 실패율이 높은 비효과적인 피임법의 사용이다. 본 연구결과를 실무에 적용한다면, 대학교 건강관리자는 상담실을 통하여 개별 대학생의 생식건강관련 건강행위를 조사하여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집단 접근에서는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생식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식건강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신의 신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스스로 올바른 건강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생식건강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이버 상담공간을 확보하여 생식건강 상담의 통로를 운영할 필요도 있겠다.

## 결론

본 연구는 대전, 충남지역에 재학 중인 대학생 792명을 대상으로 생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행위, 생식건강력, 및 성행위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하고 있었고, 과다 체중감소 경험도 높았다.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이 낮았다. 대학생의 성경험률은 19.8%, 성전과성 질환 감염률은 0.9%로 나타났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경험률이 높고 성병감염 비율도 높았다. 현재 성적으로 활발한 대학생의 경우, 한 명 이상의 성파트너, 새로운 성파트너, 피임 미실천 등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자보건을 위한 모성기 중심 건강관리 보다는 모성기 이전의 가임기에서부터 생식건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실천행위, 그리고 질병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학교 건강관리자는 대학생의 생식건강 관리와 안전한 성생활의 실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좌를 이용하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적용 후 생식건강 관련 지식 습득이라는 단기 효과와 생식건강을 위한 건강행위의 변화라는 장기 성과로 나누어 평가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2).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reatment guidelines. *MMWR*, 51(RR-6) 1-82.
- Cho, M. O., & Kim, J. I. (2004). Relationship among sexual consciousness,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and sexual experience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0(1), 59-65.
- Choi, M. S., & Ha, N. S. (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0(4), 318-330.
- Han, K. S., & Ham, M. Y. (2000).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toward sexual behavior. *J Korean Aca Soc Nurs Education*, 6(1), 115-131.
-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07). *Scope of women's health: Reproductive health*. Retrieved October 10, 2007, from [http://www.hira.or.kr/cms/rd/rdd\\_life/woman/4531.html](http://www.hira.or.kr/cms/rd/rdd_life/woman/4531.html)
- Hutchinson, M., Sosa, D., & Thompson, A. (2001). Sexual protective strategies of late adolescent females: More than just condoms. *JOGNN*, 30(4), 429-438.
- Hur, M. H., Ahn, H. Y., Kwak, E. A., Kim, K. M., Park, J. Y., & Lee, J. I. R. (2007).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Nur*, 37(3), 267-275.
- Hwang, N. M. (2008). Future directions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policy for healthy start in life. *Health & Welfare Forum*, 141, 5-19.
- Hwang, T. Y., Lee, J. J., Lee, K. S., Kang, B. S., & Kim, S. K. (2007). Drinking and its relationship with smok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Agricu Med & Rural Health*, 32(2), 97-105.
- Im, K. H., Lee, J. H., Choi, M. K., & Kim, C. J. (2004).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drinking and smoking habits. *Korean J Public Health*, 30(1), 57-70.
- Jeon, K. S., Lee, H. Y., & Rhee, S. J. (2004).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J Health Education, Health Promotion*, 21(1), 45-68, 333-360.
- Kennedy, H., Griffin, M., & Frishman, G. (1998). Enabling conception and pregnancy. *J Nurse Midwifery*, 43(3), 190-207.
- Kim, J. I., & Han, S. H. (2004). Health status, reproductive health problems, and the degree of prenatal management in married working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10(3), 226-234.
- Kim, J. I., Kim, J. S., Kim, K. H., & Kim, J. S. (2007). Influences of Level of Alcohol Consumption and Motives for Drinking on Drinking Permissiveness in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 Fund Nurs*, 14(3), 382-390.
- Kim, Y. A. (2008). *Contraception counseling and role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for adolescents*. Presented from 15th Spring Academic Conference in May 30, 2008. Seoul: Korean Womens Health Nursing Association.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6). *Survey of health behavior of adolescents- In depth analysis*. Seoul: KCDC.
- Korean Alliance to Defeat AIDS (2008). April, 28). *2007 Statistics of AIDS Patients*. Retrieved September 1, 2008, from [http://www.aids.or.kr/front/library/library\\_etc\\_data\\_view.asp#](http://www.aids.or.kr/front/library/library_etc_data_view.asp#)
- Lee, J. J., Lee, C. W., & Woo, B. W. (2003). Youth risk behavior survey of students at a university in Daegu metropolitan city. *Korean J Public Health*, 29(2), 106-117.
- Lee, K. E., & Kim, N. S. (2003). The effect of sexuality course on sex-role stereotypes and sexual attitude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9(1), 5-17.
- Lee, Y. J. (1999). A study on the contraception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in the Kyunggi-Do. *Korean Shinheung College*, 22, 333.
- Ock, C. M., Moon, I. O., & Kim, Y. H.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practices and health statu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Korean J Public Health*, 27(3), 198-208.
- Oh, J. K., Ju, Y. H., Yoon, D. Y., Jung, K. Y., Jung, S. I., & Shin, H. R. (2005). Relationship among risk factors related to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among youth. *Korean J Epidemiol*, 29(2), 106-117.
- Parent-Stevens, L., & Burns, E. (2000). Menstrual disorders. In M. Smith & L. Smith (Eds.), *20 Common problems in women's health care*. New York: McGraw-Hill.
- Seo, J. S., & Lee, H. K. (1999). Sexual behaviors, attitude, knowledge of unmarried female student of a college. *Inje Med*, 20(1), 149-161.
- Woo, N. S., & Ka, Y. H. (2005). A Study on the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 i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ic*, 10(2), 113-133.
- Yang, S. O., & Jung, K. H. (2002). Perceptual difference of sexual image and sexual rol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n university. *Korean J Women Health Nurs*, 8(2), 289-300.
- Yoo, E. K., Kim, M. H., Kim, S. A., Park, S. A., Shin, H. S., Ahn, S. H., et al. (2005). *Maternity & Women's Health Care*. (8th Eds.). Seoul: Hyunmoon.
- Yoon, H. M. (1999). Stop drinking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 Public Health*, 24(1), 18-32.